光日春秋

'문화재 보존 국민신탁' 성공하려면

김 정 동

내달 6월이면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창립된다. 난산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국민신탁에 맡겨 보존, 활용해 보자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영국의 문화재 보존단체인 잉글리시 헤리티지와 내셔널 트러스트에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것들의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 영자 그대로 받아 써왔다. 어쨌든 이 단체들은 시민의 문화재 사랑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것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이다.

필자는 지난여름 영국에 가는 길이 있어 스톤헨지(Stonehenge)를 들러 봤다.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였다. 사람들은 고대의 대표적인 거석물을 들어 보라하면 대부분 스톤헨지를 떠올린다. 물론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를 빌려 영국 남서부 위트셔(Wiltshire)의 솔즈버리(Salisbury)로 몰았다. 스톤헨지는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주변도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녹색 평원 위에 회색돌이 강강술래를 하는 모습이었다.

스톤헨지는 영국 국유물이고 세계문화유산이다.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스톤헨지는 지난 1918년 이후 발굴 조사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폐허화된 상태였다. 지금은 돌기둥 높이 4.4m 짜리 30개 정도만이 남아있다. 지름 86.6m 정도 되는 원 속에 들어 있다. 돌 중 큰 돌은 25t이나 나간다고 한다.

스톤헨지는 4천년 전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숭배를 하며 만든 것이라 한다. 원 주변에는 스테이션 스톤과 무덤 흔적, 그리고 8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힐 스톤이란 것이 있다. 1979년에 발굴된 것이다.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 스톤헨지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지금 스톤헨지의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의 보존 대책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톤헨지는 지금 관광객 접근문제, 그리고 도로문제, 자동차 소음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찾은 날도 관광객이 줄을 있고 있었다. 관광객은 돌무더기에 좀더 가까이 접근하려 하고 있었다. 물론 출입금지 표시 줄이 쳐 있었지만 예외인 사람은 여기도 없을 리 없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잉글리시 헤리티지와 내셔널 트러스트 그리고 영국도로공사, 즉 관민 3단체의 협조아래 '스톤헨지 프로젝트'라는 보존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10년이 걸리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스톤헨지 주변을 지나는 V자형의 두개의 도로를 폐쇄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부근에 지하 터널을 뚫어 지상으로는 차가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한다. 진동과 매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주차장도 폐쇄시켜 이를 잔디로 덥고 3㎞ 떨어진 곳에 최첨단 방문객 센터를 만들어 그곳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 한다. 방문객 센터는 스톤헨지 지원센터가 되는 것이다. 각종 전시·교육시설 그리고 서점·기념품 매장·카페 등이 이곳에 들어간다. 물론 지원센터는 스톤헨지보다 들어나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객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센터에서 스톤헨지까지는 랜드 트레인이라는 것을 설치, 관광객을 이동시킬 것이라 한다. 부러운 계획이었다. 우리는 좀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데….

현재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반관반민 단체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잉글랜드에 있는 문화재 350개소를 보존 관리하고 있다. 그들의 위상은 높다. 문화재 전문가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협조체제를 잘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기관, 문화재청 오직 하나 뿐이다. 모두 다 여기 매달린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 국민신탁 제도가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가 필수여야 할 것이다.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박 형 철

'술 없는 독일 월드컵과 함께'

"민주화 성지인 광주의 정신을 기리고, 환경과 건강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무등산은 지역 방송사 일요 뉴스시간 휴일 표정 스케치에 단골로 등장한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등산을 취재하기 편하고, 시민들은 큰 경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갈 수 있다.

무등산은 '일주일 묵은 때를 벗겨내고 건강도 지켜준다'는 '일석이조'의 논리에도 꼭 들어 맞는다.

"많이 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왜 체중이 줄지 않죠?" 동구의 12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을 지는 업무를 맡고 있는 탓에 이런 질문을 가끔 듣는다.

원인을 찾기 위해 "그래, 무슨 운동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주말마다 무등산 갑니다. 지난 주말에도 일주했습니다. 저로선 엄청난 운동량 이었죠."라는 답이 되돌아온다.

"하산 길에서 보리밥 집에 들러서 산채비빔밥 한 그릇 먹고, 동동주도 한잔 걸쳤죠. 좀 과음했는지 다음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더라구요."

이 정도면 '해답'이 나온다.

등산·골프·테니스 등 '한 되' 운동을 한 뒤, '한 말'의 술을 마셔버리니 살을 빼지 못하고, 건강도 잃는 것이다.

알코올은 낮지 않은 칼로리(소주 1잔에 70㎈)를 함유하고 있는데다, 체지방을 증가시키거나 분해를 억제하니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다.

10여일만 지나면 온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에 파묻힐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는 심야에 열리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낮과 밤이 바뀔 것이고, 몸에 큰 무리가 올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잠 쫓으려고 '한 잔', 월드컵 4강 신화를 되새기며 '두 잔', 거리에서 만난 다른 축구 팬과 '석 잔'하는데 있다.

월드컵은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대신 상당한 '대가'를 가져갈 것이다.

밤과 낮이 뒤바뀐 생리 부조화·커피·담배, 거기에 알코올까지. 중계방송을 지켜 보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한 것만 못하다고 하지 않은가.

공약은 선거 공보나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약력은 수시로 나눠주는 명함을 통해 알고 있다.

굳이 도로를 비롯, 주택가에서 확성기를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는게 낫다.

▲박현석·광주시 동구 지산동

기 고

이 상 수

'시·도민 마음의 혁신 룰' 제정 촉구한다

최근 광주 1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는 광주를 '평화의 도시'로 승화시키고자 호소한 일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평화의 도시가 되려면 현 상태에서 평화도시 선언식만 한다고 우리 지역이 평화도시로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평화도시라고 말하기 전에 외부에서 평화도시로 보이게끔 우리의 문화나 외부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화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설정해 놓고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표도 구체성이 없으면 실현되기가 힘들다.

'1등 광주 1등 시민'도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등 광주는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며, 1등 시민은 무엇을 일등하자는 것인가 제시되었어야 한다. 구체적인 행목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마음의 혁신' 룰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평화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도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만들어 실천해 보임으로써 외부인들이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는 제안이다.

일찍이 동경에서는 도민의 의견과 '마음의 행동혁명추진회의'에서 제안한 '마음의 동경 룰' 행동플랜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도 기업들과 손잡고 대대적인 미국인 이미지 개선 운동에 나섰다.

이에따라 외국 출장을 가는 미국 주요 기업의 임직원에게 16가지 행동지침을 담은 '월드 시티즌 가이드'라는 책자를 배부했는데, 주요 내용은 '생각은 마음껏 하되 언행은 줄여라. 적어도 얘기하는 것만큼은 들어라. 느림보가 되라. 음성을 낮춰 천천히 말한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얘기하려면, 얘기만 하고 언쟁하지 말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도시의 미래상에는 외부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부구성원들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행동준칙을 만들어 내면화시켜 나아가도록 하고, 각종 강화시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참모습이 잘 못 알려져 우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잘하는데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타 지역민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식할 때 까지 스스로 더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인 행동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

독자마당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 지나치면 소음일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요 도로 곳곳에서 입후보자의 이름과 로고송을 틀어대는 확성기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과 내세운 공약을 홍보,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갓길·정체구간등 '도로위 장사' 사고 위험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갓길이나 정체구간 등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료수나 간식을 파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이들 중 일부는 신호가 바뀐 뒤에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로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는 사고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경찰과 구청은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김연미·광주시 서구 풍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北 변덕·옹고집 南 평화세력 입지 좁힌다

오늘로 예정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이 북한측의 일방적 취소 통고로 무산됐다. 55년간을 기다려왔던 남북간 철도 개통이 허사로 돌아간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북 양측의 책임있는 당국자 간에 합의된 사안을 전격적으로 내팽개친 북한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북측이 내세운 취소 사유는 타당성이 결여됐다. 북측은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남측 정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는 우리 측의 줄기찬 요구에도 북측이 논의조차 기피했던 사안이다. 북한이 이제와서 군사적 보장조치 부재를 주장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남측 정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 역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남북간 교류확대에 비판적인 군부 강경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유력하다.

통일부관계자는 시범운행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 2005년에 이어 또다시 남북 철도시범운행이 불발로 끝남에 따라 남북간 화해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측은 물론 남한내 보수세력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대북 교류확대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조건없는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 내부 갈등 역시 더욱 심화될 소지가 커졌다.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열차 방북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철도시험운행 무산은 남북간 신뢰관계 형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양측간 상호 신뢰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이 남북경색국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박대표 테러범 배후 의혹 철저히 밝혀야

사회 부적응자의 화풀이 범죄로 알려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테러사건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을 드러내고 있다. 범인 지충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면서도 돈 씀씀이가 상당했고 평소 주변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두명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고가의 최신 휴대폰으로 한차례에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는가 하면 자신 명의의 전화기가 4대나 된다니 의아할 뿐이다. 모 언론에 따르면 최근엔 그가 장시간 전화통화중 "나 그런 것 안해요"라는 말을 했다니 누군가 그에게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판사가 범행당시 주변상황으로 보아 지씨의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배후 규명작업은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지씨의 돈 씀씀이에 대해 추궁한 결과 무도장을 출입하며 여성들로부터 용돈을 얻어썼다는 진술을 받은 정도일 뿐 그의 행각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구도상 박근혜 대표가 인신테러를 당함으로써 이득을 볼 세력이 누구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점이 지씨의 범행에 대해 무턱대고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대변인조차도 "사건 배후에 대해 예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어떻게든 최단시일 내에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 지씨가 취업청탁을 하러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지씨와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이사건이 또 하나의 의혹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검·경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無 等 鼓

세 마리 곰

영국의 전래동화에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가 있다. 여기에서 골디락스는 골드(gold)와 락(lock·머리카락)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뜻한다.

동화에서 골디락스는 곰이 끓인 세 가지의 수프, 즉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적당한 것 가운데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한다. 이 동화는 사람의 본능은 극단적인 선택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비유해 골디락스가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는 호황을 의미하는 경제용어가 됐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중국이 2004년 9.5%의 고도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상승이 없는 것을 '중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반화됐다.

또 가격이 아주 비싼 상품과 싼 상품, 중간 가격의 상품을 함께 진열하여 중간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판촉기법을 '골디락스 가격(goldilocks pricing)'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유가와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마리 곰'이 세계경제의 '골디락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저널은 에너지 가격 불안을 엄마 곰, 부동산 버블을 아빠 곰, 인플레이션을 아기 곰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세 마리 곰'이 세계 경제가 지난 4년간 향유해왔던 '골디락스'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거 정국에 몰입해 경제는 뒷전인 느낌이다. 한 술 더 떠 경제 사정(司正)에 열을 올리며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세 마리 곰'은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경제구조가 취약한 이머징마켓에 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고가 왠지 우리를 지칭한 것 같아 꺼림칙하다.

/정재현 사회 2부장 jhju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